

하늘엔 태극기·땅에는 애국가... '고진영 시대' 열렸다

LPGA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 ... 시즌 3승·메이저 2승
세계 랭킹·평균타수·상금·올해의 선수 등 1위 독주



‘하늘엔 태극기, 땅에는 고진영.’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끝난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 시상식 장면은 마치 하늘에서 ‘앞으로 여자골프는 고진영(24)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선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고진영이 이날 시즌 네 번째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총상금 410만달러) 우승을 차지한 데 따른 세리머니였다. 고진영은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527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로 4언더파 67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고진영은 공동 2위인 김효주(24)와 평산산(중국), 제니퍼 켈초(미국)를 2타 차로 따돌리고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5승을 달성했다.

시상식은 대회 관례대로 스카이 다이빙들이 우승자 나라의 국기를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관을 연출했고, 이 대회 챔피언 고진영이 그 ‘스카이 태극기 세리머니’의 주인공이 됐기 때문이다.

2016년 전인지(25) 이후 3년 만에 에비앙에서 태극기 세리머니가 펼쳐지게 한 고진영은 시상식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낮선 땅에서 태극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애국가가 울릴 때는 참을 수 없게 벅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진영은 이날 우승으로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거의 전 부문에서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고진영은 올해 4월 시즌 첫 메이저 대회로 열린 ANA 인스퍼레이션에서 우승하는 등 이미 시즌 2승을 쌓아 올해의 선수와 평균타수 부문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다만 상금과 세계 랭킹에서는 2위였는데 이번 우승으로 이 부문 선두도 탈환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 김효주(24)에게 4타나 뒤져 역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봤으나 특유의 안정적인 경기력을 바탕으로 뒤집



고진영이 28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막 내린 시즌 네 번째 메이저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후 트로피에 입맞춤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에 성공했다. 상금 부문은 이정은(23)에게 약 27만 달러 정도 뒤진 2위였는데 에비앙 우승 상금 61만5천달러를 추가, 오히려 33만달러 차이 선두로 나섰다.

세계 랭킹 역시 박성현(26)에 뒤진 2위에서 약 한 달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올해의 선수 부문에서는 189점을 획득, 2위 박성현의 111점과 간격을 78점으로 벌렸다. 평균타수 역시 고진영이 69.109타를 기록, 69.171타의 김효주를 앞선 1위다.

고진영은 또 2015년 박인비(31) 이후 4년 만에 한 해에 메이저 2승을 달성한 선수가 됐다.

이 결과 한 시즌에 5대 메이저 대회 성적

을 합산해 순위를 정하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 부문에서도 1위에 올라 수상이 유력해졌다.

고진영도 우승한 뒤 “작년보다 골프가 좋아졌다”며 “드라이브 거리나 아이언, 퍼트가 좋아져서 메이저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이브샷 비거리는 지난해 252.4야드

(77위)에서 올해 259.3야드(76위)로 늘었다. 순위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평균 7야드 정도 더 나가는 셈이다.

8월 1일부터 곧바로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떠오른 고진영은 2015년 박인비 이후 역시 4년 만에 한 시즌 메이저 3승에 도전한다. /연합뉴스

남자 드레셀·여자 세스트림 MVP



1위 중국·2위 미국·3위 러시아

‘수영황제’ 카일립 드레셀(23·미국)은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끝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남자부 최우수선수(MVP)의 영예를 안았다.

드레셀은 이번 대회에서 6관왕에 오르며 2017 부다페스트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어 2회 연속 최우수 선수에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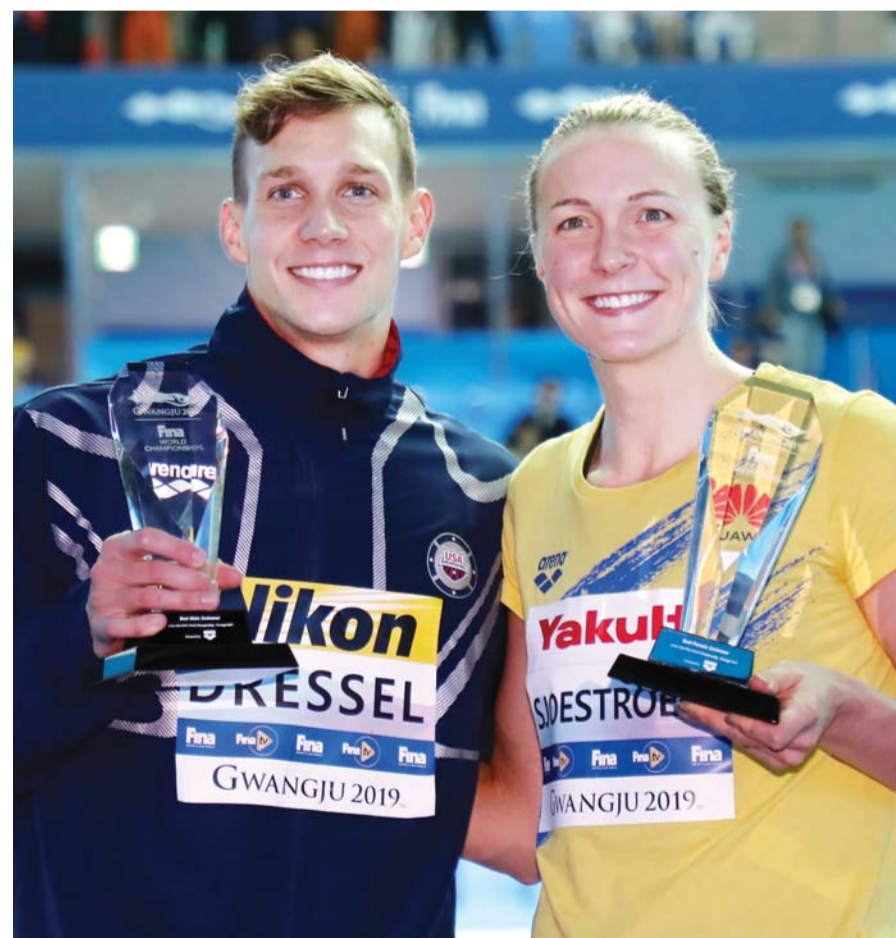
그는 이번 대회 남자 자유형 50·100m와 접영 50·100m, 남자 계영 400m, 혼성 계영 400m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혼성 혼계영 400m과 대회 마지막날 열린 남자 혼계영 400m에서는 은메달을 손에 쥐었다.

지난 27일에는 100분 사이 자유형 50m, 접영 100m, 혼성 계영 400m에 출전해 금메달 3개를 쓸어 담기도 했다.

이번 대회 내내 다른 선수들과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인 드레셀은 이번이 대회 최우수 선수에 뽑히며 대회를 마무리했다.

스웨덴의 사라 세스트림(26)도 2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최우수선수를 차지했다.

세스트림은 이번 대회에서 접영 50m 금메달을 차지했다. 또 접영 100m와 자유형 50m 은메달, 자유형 100m·200m에서 동메달을 수확했다.



미국의 카일립 드레셀(왼쪽)과 스웨덴의 사라 세스트림이 지난 28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여 최우수 선수에 선정된 뒤 트로피를 들며 환하게 웃고 있다.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제공>

지난 22일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는 2위를 차지한 뒤 금메달을 딴 마거릿 맥닐(19·캐나다), 동메달리스트 엠마 매किन(25·호주)와 함께 백혈병으로 투병 중인 일본 여자 수영선수 이케에 리카코(19)를 응원하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감동을 전하기도 했다.

경영 베스트 팀은 금메달 14개, 은메달 8개, 동메달 5개를 휩쓴 미국이 차지했다.

‘여제’ 케이티 레데키(22)가 이번 대회를 앞두고 고열 등으로 부진하고 카일립 드레셀이 목표했던 8관왕에는 아쉽게 실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 기록 10개와 대회기록 17개가 쏟아진 경영에서 5개의 세계기록과 9개의 대회기록을 세우며 수영 강국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승은

순위	국가	금	은	동	합계
1	중국	16	11	3	30
2	미국	15	11	10	36
3	러시아	12	11	7	30
4	호주	7	9	7	23
5	헝가리	5	0	0	5
6	이탈리아	4	6	5	15
7	영국	4	2	6	12
8	독일	3	2	3	8
9	브라질	2	3	2	7
10	캐나다	2	2	7	11
23	대한민국	0	0	1	1

대회 초반부터 독주 체제를 이어간 중국이 차지했다. 중국은 대회 초반 열린 다이빙에서 전체 금메달 13개 중 12개를 휩쓸면서 앞서나갔다.

경영에서도 양양(자유형 100·200m)과 쉬 지아위(배영 100m)가 금메달 3개를 합작하는 등 금메달 16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3개를 수확했다. 2위는 금메달 15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한 미국이 차지했다. 3위는 금메달 12개, 은메달 11개, 동메달 7개를 수확한 러시아가 기록했다.

한국은 지난 13일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수지(21·울산시청)에 힘입어 이집트, 뉴질랜드, 크로아티아와 함께 공동 23위를 기록했다. /특별취재팀·김한영 기자 young@

‘투르 드 프랑스’ 110년만에 최연소 22살 우승자

콜롬비아 출신 베르날

올해 106회를 맞은 세계 최고 권위 도로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역대 최초로 콜롬비아 출신 선수가 정상에 올랐다.

에간 베르날(사진·콜롬비아·팀 이네오스)은 28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끝난 2019 투르 드 프랑스에서 총 82시간 57분을 기록,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1997년생인 베르날은 110년 만의 최연소 투르 드 프랑스 우승자이자 남미 최초 우승자다. 베르날은 25세 이하 선수 중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돌아가는 ‘화이트 저지’도 차지했다.

올해 투르 드 프랑스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출발해 28일까지 21구간에 걸쳐 프랑스를 일주하는 3365.8km 대장정을 진행했다. 176명의 참가 선수 중 마지막 구간까지 생존한 선수는 155명뿐이었다.

개인종합 2위는 82시간 58분 11초를 기록한 게라인트 토머스(영국·팀 이네오스)로, 베르날과 1분 11초 차이. 3위 스티븐 크루이즈빅(네덜란드·점보-비스마)은 82시간 58분 31초를 기록했다.

올해 대회 20구간에서는 산사태로 레이스가 축소 운영되기도 했다.

마지막 21구간에서는 한국인 어머니를 둔 케일럽 이완(호주·로토수달)이 우승했다.

2015년 투르 드 코리아에서 정상에 오르기도 했던 이완은 처음 출전한 투르 드 프랑스에서 3개 구간 우승을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연합뉴스



권순우, ATP 투어 멕시코오픈 본선 진출

권순우(112위·CJ후원)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대회 단식 본선에 2주 연속 진출했다.

권순우는 28일(현지시간)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열린 ATP 투어 멕시코오픈(총상금 76만2455달러) 대회 예선 이틀째 2회전 경기에서 마르셀로 아레발로

(288위·엘살바도르)를 2-1(7-6(7-2) 5-7 6-3)로 제압했다.

지난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열린 ATP 투어 BB&T 애틀랜타오픈(총상금 69만4995달러)에서도 예선을 통과, 투어 대회 본선에 진출한 권순우는 2주 연속 예선 관문을 통과했다. /연합뉴스